

국어 영역(B형)

제 1 교시

1

[1~3]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학생자치법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각 두 번씩의 입론과 교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각 측에서 반박과 최종 변론을 하는 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맡아 교칙을 위반한 교내의 학생을 선도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에 합당한 교육처분을 판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은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인근 △△ 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자치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아졌다는 통계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에 찬성합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한 주체’와 ‘합당한 교육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모두 학생이라는 말씀이시죠?

찬성 1: 당연히 그 주체는 우리 학생입니다.

반대 2: 그리고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회자: 반대 측 입론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 1: 현재 우리 학교에는 이미 교칙이 있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크고 작은 교칙 위반 사례에 대해 선생님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에서 교육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야 하는데, 재판을 받는 피고 측 학생의 경우는 자기 변호에 급급해서 자율성 함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찬성 1: 찬성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넓게 보면 학생자치법정도 교칙을 지키는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신 거죠?

반대 1: 글썽요..... 그렇긴 합니다.

찬성 1: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역할을 적절히 나누고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사회자: 다시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2: 학생자치법정 제도는 어떤 학생이 저지른 잘못을 따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학생의 사정이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지각을 반복했다면 기존에는 지각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지만,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하

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호를 맡은 학생의 도움을 받아 처분이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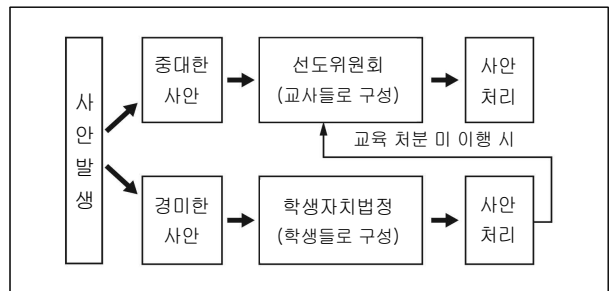
1.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1’은 새로운 제도의 개념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찬성1’은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찬성2’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1’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반대2’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위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② 토론의 논제와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④ 토론자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 ⑤ 토론의 내용이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게 중간에서 방향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3. 다음 자료는 △△ 고등학교의 학생지도 흐름표이다. 이를 찬성 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② 경미한 사안도 경우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③ 경미한 사안도 경우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처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율성 함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④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분담하여 처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비효율적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⑤ 중대한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사안을 처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 선도 시 공감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4 ~ 5]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서 대원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중에 친구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생의 반응을 살피며)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잘 듣고 방법을 익혀 두셔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조치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단계', '가슴 압박 단계', '인공호흡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단계'에서는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의식이나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고 혈떡이는 등의 상태가 나타난다면, 즉시 주변 사람들 중 한 명을 지목해서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정중앙 부분을 깍지 낀 손의 손바닥으로 힘껏 누릅니다. 이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자, <그림>을 봐 주세요. (<그림>을 가리키며) <그림>처럼 팔꿈치는 펴고 팔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 압박 깊이는 적어도 5cm 이상으로 하고, 압박 속도는 분당 100 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림>

마지막으로 '인공호흡 단계'에서는 한 손으로는 환자의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줍니다. 그리고 이마를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은 뒤 환자의 입에 숨을 2회 불어 넣습니다. 이때 결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나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의 비율로 반복합니다. 이후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잘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인체 모형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4. 강사의 강연 계획 중 위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강연 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여 청중의 집중을 유도해야 되겠군.
- ②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겠군.
- ③ 자신의 경험담을 활용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전달력을 높여야겠군.
- ④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겠군.
- ⑤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청중에게 강연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겠군.

5.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보기>의 실습 과정을 점검하였다.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심폐소생술 실습을 위해, 영호는 인체 모형에 다가가 ㉠ 인체 모형의 어깨 부분을 가볍게 치면서 반응을 살폈다. 그 다음 ㉡ 주변의 한 명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외쳤다. 그리고 인체 모형의 가슴 부분에 ㉢ 깍지 낀 손을 대고 압박을 시작하였다.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한 후, ㉣ 한 손으로는 이마를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리고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였다. 영호는 강사가 그만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 ① ㉠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의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은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에서 학생의 팔은 모형의 가슴과 90°를 유지하도록 해야겠군.
- ④ ㉣은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전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겠군.
- ⑤ ㉤에서는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단계부터 인공호흡 단계까지를 반복하는 것이겠군.

[6 ~ 7] 다음은 작문 상황이고, <보기>는 이와 관련된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주제: 일반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서비스 개선 방안
- 목적: 일반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서비스 개선 요청
- 예상 독자: 정부 및 관련 기관

< 보 기 >

- I. 서론: 일반 건강검진의 개념
- II. 본론
 1.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의 의의
 2. 일반 건강검진 관련 문제점
 - 가. 검진 기관의 수 부족
 - 나. 검진 항목별 연령이 제한됨
 - 다. 건강검진 감독 기관의 역할 강화
 - 라. 건강검진 사후 관리 개선
 3. 일반 건강검진 관련 문제 해결 및 개선 방안
 - 가. 건강검진 기관의 확충
 - 나. 검진 항목별 선택 가능 연령 확대
 - 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마련
 - 라. 건강검진 사후 관리 미흡
- III. 결론: 일반 건강검진의 서비스 개선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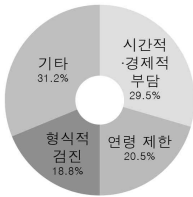
6. 글을 작성하기 전 <보기>를 수정 및 보완할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I-1'은 개요의 흐름을 고려하여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의 운영 현황 및 실태'로 바꾼다.
- ② 'II-2'의 하위 항목에 'II-3-다'를 고려하여 '건강검진 대상 항목의 획일화'를 추가한다.
- ③ 'II-2-다'는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④ 'II-2-라'와 'II-3-라'는 각각의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서로 맞바꾼다.
- ⑤ 'III'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의 인식 개선 촉구'로 바꾼다.

7.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기>의 본문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료1: 통계자료>

(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 (나) 발병률이 높은 질병의
(대상: 지역건강보험 대상자) 건강검진 포함 여부



순 위	질병	건강검진 포함 여부
1위	당뇨	포함
2위	심근경색	미포함
3위	유방암	미포함
4위	전립선암	미포함
5위	대장암	미포함

<자료2: 전문가 의견>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 제외되어 선택 검진을 받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큼니다. 또한 일반 건강검진은 개별 검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소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검진자의 병력 등을 고려한 건강검진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건 >

- 본문 'Ⅱ-3-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목적 또는 의도-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할 것.

- ① 소외 계층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② 건강검진 기관은 주요 질병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검진 항목을 확정하고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③ 검진 항목이 획일적이므로 발병률이 높은 주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야 한다.
- ④ 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개인 병력을 고려한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 ⑤ 건강검진 기관이 검진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하여 주요 검진 항목을 정한다면, 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보기 1>을 <보기 2>와 같이 요약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

교열(校閱)을 '남이 써 놓은 글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는 작업' 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교열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문장을 다듬는 것이다. 아울러 글쓴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바르게 수정하며 글쓴이 특유의 어조를 지켜 줘야 하고 언어적 습관도 유지해 줘야 한다. 이처럼 교열은 폭넓은 상식과 풍부한 언어적 지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교열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첫째, 폭넓은 우리말 지식이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둘째, 인문, 과학, 기술,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상식이다. 인터넷에도 술한 거짓 정보가 떠다닌다. 예를 들어 '달에서 볼 수 있는 지구의 유일한 인공 구조물은?'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만리장성'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실제로 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지구의 인공 구조물은 없다. 이처럼 교열자는 자기만의 다양한 거름장치로 이러한 오류들을 찾아내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셋째, 글쓰기 실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교열자의 자질이다. 교열자의 능력은 글쓴이의 거친 문장, 잔뜩 꼬인 문장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다듬을 때 빛난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열자 스스로가 글을 쓰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작문 실력이 없으면 거친 문장과 꼬인 문장을 알기 힘들고, 이를 다듬기는 더욱 힘들다.

교열은 힘들고 지겨운 과정이다. 하지만 교열자는 출간된 책을 접하게 되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보 기 2>

흔히 교열(校閱)은 글의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교열은 독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하고 글쓴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수정하면서 글쓴이의 언어적 습관까지도 유지해 주는 복잡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교열자는 폭넓은 우리말 지식과 풍부한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풍부한 상식을 바탕으로 세운 기준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장을 다듬을 수 있는 글쓰기 실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교열은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며 교열자는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원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
- ② 원문에 쓰인 비유적 표현을 의미가 명확하게 바꾼다.
- ③ 원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보의 순서를 바꿔 제시한다.
- ④ 원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진술한다.
- ⑤ 원문의 중심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글 전체의 주제문을 만든다.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자신이 관람한 공연에 대한 소개의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지난 일요일에 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주관한 뮤지컬 ‘지켜주세요’를 관람했습니다. ㉠ 아름다운 주인공 공의 노래로 막을 연 공연은 2시간 동안 배우들이 신나게 ㉡ 노래와 춤을 추고 갑작스럽게 객석으로 다가가는 등의 행위로 공연장에 모인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 청소년 시기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지금은 ‘폭력 사건’으로 다루어질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모두 나와 합창하며 춤을 춘 마지막 장면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 대학교 연극영상학부 교수인 김OO 씨는 “이 공연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청소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공연을 관람한 후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교내에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런 공연을 더 많은 학생이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에 대한 궁금증은 ㉤ 댓글을 다시든 메일을 보내 시든 관심을 보여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치기에는 정말 아쉬운 공연입니다. 꼭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러 가시기를 거듭 권해드립니다.

댓글달기

9. ‘과제의 초고’에서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의 표현을 사용한다.
-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③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난다.
- ④ 적절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 ⑤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10.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수식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주인공의 아름다운 노래’로 고친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로 고친다.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뒷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④ ㉣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되기를’로 고친다.
- ⑤ ㉤은 어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댓글을 다시든 메일을 보내시든’으로 고친다.

11. 다음의 표준 발음 규정을 바탕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10항] 겹받침 ‘ㄸ’, ‘ㄴㅌ’, ‘ㄹㅌ, ㄹㅍ, ㄹㅊ’,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넋’은 [넉또]로, ‘넋이’는 [넉씨]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② ‘없을’은 [업쑈]로, ‘없어’는 [을퍼]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모두 제14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③ ‘꽃을’을 [꼬들]이 아니라 [꼬출]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 ④ ‘있어’는 [이씨]로, ‘앉아’는 [안자]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각각 쌍받침과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 ⑤ ‘값’을 [갑]으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제10항의 규정이, ‘값을’을 [갑쑈]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제14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 사용된 용언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

- ㉠ 대등적 연결 어미와 ㉡ 종속적 연결 어미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때, 대등적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고, 종속적 연결 어미는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의 ‘배경’, ‘원인’, ‘조건’, ‘양보’, ‘결과’, ‘목적’ 등의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준다.

< 보기 2 >

- 선생님: 안녕? 일찍 등교했구나.
 학생: 네. 달리기 ㉠ 연습하려고 일찍 왔어요. 체육 대회에 ㉡ 출전하게 됐거든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기록을 확인할 수 ㉢ 있게 내가 좀 도와줄까?
 학생: 정말요? 안 그래도 기록 측정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긴. 너처럼 ㉤ 연습하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럼 초시계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려.

- | | ㉠ | ㉡ | ㉢ |
|---|---|------|------|
| ① | b | a, c | c, d |
| ② | d | a, c | b, c |
| ③ | d | b, c | a, c |
| ④ | e | a, c | b, d |
| ⑤ | e | c, d | a, b |

13.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언어 표현은 문장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장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생략하였거나, ㉡ 호응 관계가 잘못 되었거나, 또는 ㉢ 문장 안에서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수정 전 문장	수정 이유	수정 후 문장
우물 속에 빠진 여우가 골똘히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 ㉠ ⇒	㉠
어머니는 종종 동그랗고 하얀 내 얼굴이 닮았다고 하셨다.	⇒ ㉡ ⇒	㉡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 ⇒	㉢
비록 네가 나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	⇒ ㉣ ⇒	㉣
우리가 정신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 ㉤ ⇒	㉤

- ① ㉠: 우물 속에 빠진 여우가 빠져나갈 방법을 골똘히 궁리하고 있습니다.
 ② ㉡: 어머니는 종종 동그랗고 하얀 내 얼굴이 이모와 닮았다고 하셨다.
 ③ ㉢: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④ ㉣: 만약 네가 나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
 ⑤ ㉤: 우리가 정신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14. 다음의 탐구 학습 과정에서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 그는 그 책을 <u>가지고</u> / <u>갖고</u> 있지 않다. ◦ 그는 조심스럽게 받을 <u>디디었다</u>. / <u>디뎠다</u>. / *<u>딘었다</u>. ◦ 나는 <u>어제저녁</u> / <u>엿저녁</u>에 친구를 만났다 (*표시는 어문 규정에 어긋남을 의미함.)
↓	
의문	◦ ‘가지고’, ‘디디었다’, ‘어제저녁’은 어떤 방식으로 준말이 만들어질까?
↓	
탐구과정	◦ ‘갖고’, ‘디뎠다’, ‘엿저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다. ㄱ. 갖고: 가지- + -고 → 갖고 ㄴ. 디뎠다: 디디- + -었- + -다 → 디뎠다 / *딘었다 ㄷ. 엿저녁: 어제 + 저녁 → 엿저녁
↓	
결과	㉠

- ① ‘갖고’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을 탈락시켜 준말을 만든 경우로군.
 ② ‘디뎠다’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축약되어 준말을 만든 경우로군.
 ③ ‘엿저녁’을 보면, 앞 어근의 끝음절 모음이 탈락하고 자음만 남는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려붙여 준말을 만들었군.
 ④ ‘딘었다’와 ‘갖고’를 보면,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준말이 만들어지지 않군.
 ⑤ ‘디뎠다’와 ‘딘었다’를 보면,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준말이 될 때, 어간의 끝음절 자음이 바로 앞 음절의 받침으로 쓰일 수 없군.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¹ **의존명사**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²

[1] **대명사**

㉠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2] **관형사**

㉠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³

[1] **수사**

㉠ 일에 일을 더한 수, 아라비아 숫자로는 '2', 로마 숫자는 'II'로 쓴다.

[2] **관형사**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말.

- ① '저 모자를 쓴 이가 누구지?'의 '이'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¹'의 용례가 되는군.
 ②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으므로 '이²'는 다의어에 해당하는군.
 ③ '이² [1]㉠'의 용례와 '이² [2]㉡'의 용례를 통해 '이²'는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이 킬로미터를 걸어라'에서 '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므로 '이³ [1]㉠'의 용례로 들 수 있군.
 ⑤ '이¹', '이²', '이³'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

16. 다음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느-', '-더-', '-(으)라-' 등이 있다.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거나 선어말 어미 '-더-'를 써서 표현하였고,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느-'를 써서 표현하였으며, 미래 시제는 '-(으)라-'를 써서 표현하였다. 한편 '-더-'는, 주어가 화자 자신일 때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 '-오-'와 결합하여 '-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보기 >

ㄱ. 내 통답하다라 <석보상절>

ㄴ. 네 이제 또 물느다 <월인석보>

ㄷ. 네 아비 하마 주그니라 <월인석보>

ㄹ. 그땃 쓰를 맞고져 하더이다 <석보상절>

ㅁ. 내 願(원)을 아니 從(종)하면 고졸 몬 어드리라 <월인석보>

- ① ㄱ은 '통답하다라'에 '-다-'의 형태가 나타나 있으므로 과거 시제이겠군.
 ② ㄴ은 '물느다'에 선어말 어미 '-느-'가 사용되었으므로 현재 시제이겠군.
 ③ ㄷ은 '주그니라'에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제이겠군.
 ④ ㄹ은 '하더이다'에 선어말 어미 '-더-'가 사용되었으므로 과거 시제이겠군.
 ⑤ ㅁ은 '어드리라'에 선어말 어미 '-리-'가 사용되었으므로 미래 시제이겠군.

17. 다음 글에서 강조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젊었을 때 사마천의 「화식열전」을 읽었다. 그런데 단지 200번쯤 독서하고서, 비록 꿈속이지만 줄줄 외워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일과 사물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익숙하게 물이 흐르듯 외워 이미 수십 줄을 읽어 내려가곤 했다. 장차 마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데, 마음을 제멋대로 풀어놓는 것이 독서하지 않을 때보다도 더욱 심했다. 이 때문에 「화식열전」을 내던져두고 다른 책을 읽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내용을 온전하게 외우려 해도 서너 줄을 내려가면 꼭 막혀버린다. 책을 펼쳐 들고 네댓 번을 읽어야 비로소 다시 외울 수 있다. 책 한 권을 거의 1천여 번 읽은 사람도 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재주와 기술이 있어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는지, 나는 도통 알지 못하겠다.

책 한 권을 수천 번 계속 읽으려면, 반드시 먼저 수백 번을 읽고서 내가 젊었을 때 「화식열전」을 읽었던 것처럼 익숙해지는 즉시 내팽개쳐둔다. 그 사이에 다른 책을 보다가, 한두 해가 지나 혹시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다시 수십 수백 번을 읽는다. 그리고 매우 매끄럽다고 여겨지면 곧바로 중단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수천 번을 채우면, 마음이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고 학문과 지식의 힘도 또한 깊어질 것이다.

— 홍길주, 「수여연필(睡餘演筆)」 —

- ① 책을 읽을 때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어야 한다.
 ② 책을 읽을 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서 읽어야 한다.
 ③ 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④ 책을 읽을 때는 이미 읽은 책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⑤ 책의 내용이 사회 현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폴레옹의 대관식에 참석한 한 정치인이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이 얹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대관식에 참여한 누군가는 이를 나폴레옹의 머리 위에 왕관이 올라가는 물리적인 현상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언어 표현을 여러 가지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언어와 그 의미 등 인위성이 개입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자연물들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문화의 바탕이 되는 의미라는 것을 정의하는 이론은 다양하다. 하지만 자연과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을 전제로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 들뢰즈는, 일반적인 의미 이론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의미의 개념을 규정한다.

의미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론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 지시 이론에 따르면, 의미는 언어 기호가 특정 대상을 지시할 때 성립한다. 앞의 예에서, ‘나폴레옹’, ‘왕관’ 등이 지시하는 외부 대상이 의미인 것이다.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는 ㉡ 현시 이론은, 언어를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주체가 언어 기호의 지시 대상을 통해 주관적으로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의미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이 얹혔다.”라는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 말을 한 정치인의 생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 기호작용 이론은 언어 기호들의 구조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다. 언어 기호들의 구조, 즉 문법적 체계가 언어 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이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규정된다. 이에 따르면, ‘왕관’에서 주격 조사 ‘-이’가 ‘왕관’을 문장의 주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왕관’은 얹히는 주체로 의미가 확정된다.

㉣ 들뢰즈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앞의 세 이론들은 의미를 문화의 차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들뢰즈는 자연과 문화의 차원을 포괄하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의미의 개념을 규정한다. 들뢰즈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규정한 ‘사건’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사건’이란, 인간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연의 변화와 생성이라는 현상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고, 들뢰즈는 이를 ‘의미’라고 지칭한다. 들뢰즈는 이 ‘의미’ 그 자체는 규정된 것이 아니지만 ‘문화적 장(場)’이 ‘의미’ 규정의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문화적 장’이란 정치, 역사, 예법 등 인간의 삶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사건’으로서의 규정되지 않은 ‘의미’는 이 ‘문화적 장’에 편입될 때 비로소 규정된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이 얹혔다.”라는 언어 표현 및 그것이 드러내는 현상은 들뢰즈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나폴레옹의 머리에 왕관이 얹히면서 생기는 물리적인 현상은 자연의 변화와 생성에 해당한다. 그 현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자 규정되지 않은 ‘의미’는, 황제 즉위의 예법과 관련된 ‘문화적 장’을 기준으로 보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규정된다. 그리고 유럽 정치라는 ‘문화적 장’을 기준으로 보면 “유럽의 정치적 질서가 재편되었다.”라는 ‘의미’로 규정된다.

18.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문화란 자연 그대로의 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 ② 인간과 다른 자연물의 차이는 문화의 유무를 통해 파악된다.
- ③ 들뢰즈는 세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건’을 정의한다.
- ④ 들뢰즈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에서 빚어진 양상을 탐구한다.
- ⑤ 들뢰즈에 따르면 자연 현상들은 인간에 의한 규정을 통해서 존재한다.

19. <보기>에 대해서 ㉠~㉣과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콜럼버스의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배에서 육지로 내려간 콜럼버스를 보고, “콜럼버스의 발이 신대륙의 해변에 최초로 닿았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도전 정신을 중시하는 선원은 이 장면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한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당시 유럽 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① ㉠에 따르면, ‘콜럼버스’와 ‘신대륙’ 등이 지시하는 외부의 대상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 ② ㉡에 따르면, 선원이 한 말의 의미 규정을 위해서 ‘도전 정신’을 중시하는 선원의 생각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에 따르면, 선원이 한 말의 의미를 규정할 때 ‘닿았다’라는 언어 기호보다는 그것이 드러내는 물리적 현상 자체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에 따르면, 문장 속에서 ‘해변’이 ‘발이 닿는 장소’라는 의미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에’라는 조사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에 따르면, 콜럼버스의 발이 신대륙의 해변에 닿은 현상에서 발생한 의미는 ‘유럽 사회’라는 문화적 장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20. 윗글의 ‘들뢰즈’의 관점에서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 소쉬르는 언어가 외부 세계를 참조하지 않고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언어 기호의 형식적 차이가 언어의 의미를 생겨나게 하고 이것은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통용된다.

- ① ㉣은 언어 기호가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군.
- ② ㉣은 언어 기호 발생 이전의 자연의 변화와 생성을 중시하고 있군.
- ③ ㉣은 언어 기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서의 ‘의미’를 간파하고 있군.
- ④ ㉣은 언어 기호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의 주관성을 중시하고 있군.
- ⑤ ㉣은 언어 기호의 문법적 체계가 언어 표현에서 갖는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군.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존 발데사리는 시각적인 정보와 언어적인 정보의 결합 및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미술가이다. 이처럼 발데사리가 미술 안에 텍스트를 활용한 것은 장식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정보’였으며 그에게 있어서 작품도 또한 하나의 ‘정보’였다. 그의 작품에서 사진과 텍스트는 모두 ‘정보’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미술과 사진이 지닌 매체의 본질에 대한 탐구이기도 했다.



<그림>

하지만 작가는 사진 아래에 ‘WRONG(잘못된)’이라는 텍스트를 캡션처럼 덧붙여 이러한 구도로 사진을 찍은 것이 의도적인 것임을 드러내어 사진 구성의 상투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 1970년대 후반의 작품들은 사진 이미지와 텍스트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작품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따라 감상자는 그의 작품을 해독하려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차츰 사진의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텍스트 없이 사진만으로 만든 작품들을 통해 사진이 언어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다. 여러 장의 사진이 하나의 문장으로 읽히도록 배열하는 시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문장들을 이미지로 시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만일 소년, 사과, 소녀의 사진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배열하였다면 ‘소년이 소녀에게 사과를 주었다.’, ‘소년과 소녀가 사과를 먹었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진 이미지들을 재배치하는 데 몰두하던 발데사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는 실제 인물들의 얼굴을 각각 원색의 동그라미로 가려 작품 속 인물의 익명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사진의 일부분을 잘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분이 제거된 사진들은 그만큼의 ‘정보’가 제거됨으로써 모호함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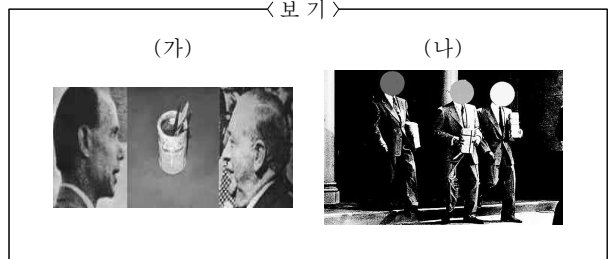
발데사리에게 모든 것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우연적인 효과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모호한 의미로 드러나기 때문에 감상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감상자가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작품 역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 캡션: 삽화나 사진 따위에 붙는 짧은 설명문.

21.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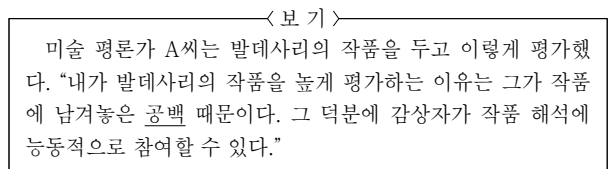
- ① 통시적 관점에 따라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를 언급한 후 절충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상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과 관련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22. <보기>는 발데사리의 작품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세 개의 사진을 배열하여 하나의 문장을 시각화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작품이겠군.
- ② (나)에서 작품의 다른 부분은 드러나지만 인물의 얼굴만 가려진 것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만약 (가)의 작품에 캡션과 같은 텍스트를 사용했다면 익명성이 강화되었겠군.
- ④ 만약 (나)의 작품에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면 ‘정보’의 정확성이 더 높아졌겠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작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감상자의 해석 가능성을 확대한 작품이겠군.

23.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해석의 모호함을 의미하는군.
- ② 언어의 장식적인 효과를 의미하는군.
- ③ 언어적인 정보끼리의 결합을 의미하는군.
- ④ 일반적인 사진 기법의 상투성을 의미하는군.
- ⑤ 텍스트와 이미지의 밀접한 연관성을 의미하는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연봉에 관한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같은 종류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수입의 차이는 다른 직종의 구성원 사이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지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공급곡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은 한 노동자의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노동공급곡선이란 임금에 따라 노동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량을 표시한 곡선을 의미한다. 이 곡선에서 균형임금*이 W_0 라고 할 때, L_0 만큼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총수입은 $L_0 \times W_0$ 로, A와 B를 합한 면적이 된다. 이때 A는

<그림>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입으로 이를 전용수입(轉用收入)이라고 한다. 그리고 B는 총수입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며, 이를 경제적 지대(經濟的地代)라고 한다.

노동자가 노동 공급으로 얻는 수입 중에서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작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자는 노동 공급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희소해지고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높은 소득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으로 노동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그 희소성으로 인해 높은 소득의 대부분을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노동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공급이 많이 증가하므로 희소성이 없어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노동 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서로 반비례하는데 극단적으로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에 희소성이 전혀 없어 이때 경제적 지대는 0이 되고 소득은 전부 전용수입이 된다. 반대로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희소성이 가장 커지므로 소득은 전부 경제적 지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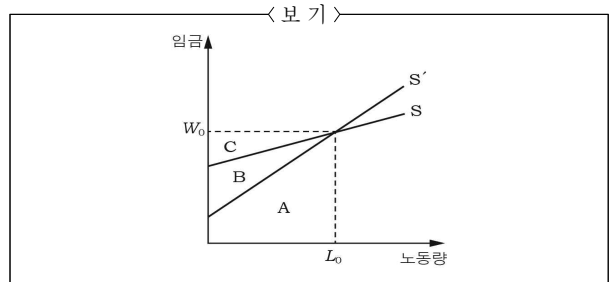
한편,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경제적 지대를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동 공급을 제한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지대추구행위'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진입장벽을 높여 타 집단과의 자유경쟁을 억압하고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 부른다. 지대추구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진입장벽의 철폐, 각종 기득권의 해체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지대의 철폐라고 볼 수 있다.

* 균형임금: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의 임금.

24.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전용수입의 개념은 무엇일까?
- ② 노동 공급이 탄력적인 직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③ 지대추구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④ 경제적 지대가 없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어떤 모양일까?
- ⑤ 노동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경제적 지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게 될까?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두 공급곡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S에 비해 S'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의 증가량이 더 커진다.
- ② S에 비해 S'는 노동 공급에 희소성이 있어 경제적 지대가 더 크다.
- ③ S'에 비해 S는 임금 변동에 따른 노동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 ④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와 S'의 총수입은 각각 A+B+C로 같다.
- ⑤ 균형임금이 W_0 일 때 S의 전용수입은 A+B이고, S'의 전용수입은 A에 해당된다.

26. 밑글을 읽고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는 광고를 계약하면서 출연료가 300만 원이면 계약을 하고, 그 이하면 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광고회사는 A와 광고 계약을 하면서 5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 B는 유명한 동료들과 회사를 만들고 서로 출연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희소성을 높여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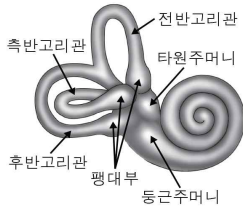
- ① A는 전용수입이 추가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하게 되겠군.
- ② A의 광고 계약 수입 중 200만 원은 전용수입이고, 300만 원은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는군.
- ③ B가 동료들과 서로 출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대의 철폐라고 볼 수 있군.
- ④ B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공급곡선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군.
- ⑤ B가 희소성을 높이는 것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활동으로 전용수입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군.

27.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 ② 저 멀리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③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 ④ 우리는 체육대회에서 신나게 응원가를 불렀다.
- ⑤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려 거래하지 않는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뇌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종합하여 몸의 평형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귀의 평형기관을 통해 뇌에서 감지되는, 머리의 위치와 운동의 방향에 대한 정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1>



<그림2>

귀의 평형기관은 <그림1>과 같이 세 개의 반고리관과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반고리관은 머리의 움직임과 관련된 회전 가속을,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의 가속을, 둥근주머니는 수직 방향의 가속을 감지한다. 또한 <그림2>에서처럼 반고리관 내부는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고 반고리관 끝에 있는 ① 팽대부 속에는 털세포가 있는데 털세포의 밑부분은 1차 감각뉴런*에 인접해 있고, 털세포의 섬모들은 젤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진 팽대정에 묻혀 있다.

반고리관 중 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측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처럼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다. 또한 후반고리관은 귀를 어깨 쪽으로 기울일 때 머리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다. 이때 반고리관마다 감지하는 움직임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각 반고리관이 머리의 안쪽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되어 있어, 반고리관들의 각도와 그에 따른 림프액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제자리에서 한 방향으로 돌면 측반고리관 속 림프액의 움직임이 가장 크며, 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림프액의 움직임은 잠시 동안 지속된다. 이때 섬모들도 림프액과 동일한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며, 이러한 섬모들의 움직임은 뇌로 송출하는 전기적 신호를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섬모들의 움직임과 뇌가 인식하는 전기신호의 변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나의 털세포에는 길이가 가장 긴 운동섬모와 길이가 짧은 여러 개의 부동섬모들이 있는데, 각 섬모들은 일종의 스프링과 같은 ‘단백질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머리의 움직임이 없을 때 섬모의 이온 채널*은 약 10%정도 열려 있는데 이를 ‘분극’ 상태라고 한다. 이때 일정량의 신경전달물질이 1차 감각뉴런에 전달되어 일정한 간격의 전기신호를 뇌로 송출하고 우리 뇌는 이것을 평형 상태로 인지한다. 그러나 머리를 움직여 림프액이 이동하면 운동섬모와 부동섬모들이 운동섬모의 방향으로 휘어지고, ‘단백질 다리’가 팽팽해지면 이온 채널이 10% 이상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한다. 반면 운동섬모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면 ‘단백질 다리’가 느슨해지면 이온 채널이 닫히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한다.

이처럼 탈분극이 발생하면 1차 감각뉴런으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늘어나고, 과분극이 발생하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뇌로 전달되는 전기신호의 발생 빈도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뇌는 우리 몸의 평형 상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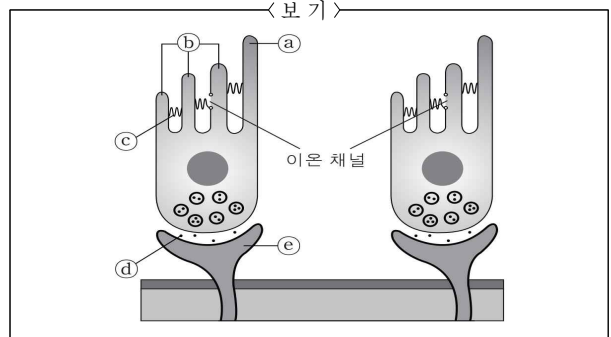
* 1차 감각뉴런: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자극을 최초로 전달받아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이다.

* 이온 채널: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28.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형 상태의 판단 과정
 - 다양한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 ② 인체 평형기관의 종류
 - 섬모들의 위치를 중심으로
- ③ 뇌의 운동 정보 인식 방법
 - 1차 감각뉴런의 구성 물질을 중심으로
- ④ 운동과 평형에 대한 정의
 - 직진 가속과 회전 가속을 중심으로
- ⑤ 몸의 평형 상태를 감지하는 원리
 - 귀의 평형기관을 중심으로

29. <보기>는 ㉠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방향으로 ㉡가 휘어지면 털세포는 탈분극 상태가 될 것이다.
- ② ㉠과 ㉡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에서 송출되는 전기신호의 발생 빈도는 변하게 될 것이다.
- ③ ㉢가 느슨해지면 털세포의 이온 채널이 닫히게 되어 ㉣가 분출되는 양은 줄어든 것이다.
- ④ ㉢에서 송출되는 전기신호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 ㉢는 팽팽해질 것이다.
- ⑤ 이온 채널이 10%정도 열려 ㉢에 전달되는 ㉣의 양이 일정하다면 뇌는 신체를 평형 상태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30.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전의자에 앉아 어지러울 정도로 돌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잠시 동안은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게 된다.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된 이유는 (㉠)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머리 자체의 움직임은 없으며, 의자의 회전 이외의 다른 작용은 없음.)

- ① 측반고리관의 림프액이 계속 움직이기
- ② 전반고리관의 림프액이 계속 움직이기
- ③ 측반고리관의 림프액이 움직임을 멈추었기
- ④ 전반고리관의 림프액이 움직임을 멈추었기
- ⑤ 측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의 림프액이 모두 움직임을 멈추었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 난다
오며 가며 빈방 안에 다만 한숨이 내 벗이로다
한번 이별하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천금주옥(千金珠玉)이 귀 밖이요 세사일부(世事一部) 관계라
근원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피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무너질 줄 모르더니 끊어질 줄 어이 알리
조물(造物)이 새우는지* 귀신이 휘짓는지
일조(一朝)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영녕하니*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
일월무정(日月無情) 절로 가니 옥안운빈공로(玉顔雲鬢空老)*로다
㉡ 오동야우(梧桐夜雨) 성긴 비에 밤은 어이 더디 가고
녹양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
이내 상사(相思) 알으시면 임도 나를 그리리다
일촌(一村) 굽이 썩어 피어나니 가슴이 답답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라
피는 불이 일어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
사랑겨워 울던 울음 생각하면 목이 뻐다
교태겨워 웃던 웃음 해아리니 이 더욱 싫다
지척동서(咫尺東西) 천리 되어 바라보니 눈이 시고
만첩상사(萬疊相思)*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날개 돋힌 학이 되어 날아서 아니 가라
산은 어이 고개 지고 물은 어이 소(沼)나 진고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해는 돌아 저문 날에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이슬 같은 이 인생이 무슨 일로 생겼는고
바람 불어 곳은 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나며들며 빈방으로 오라가락 혼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로다
공방미인독상사(空房美人獨相思)*는 예로부터 이러한가
혼자 이러한가 남도 아니 이러한가
날 사랑하든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무정(無情)하여 그러는가 유정(有情)하여 이러한가
산계야목(山鷄野鶩)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路柳牆花)* 꺾어 쥐고 춘색(春色)으로 다니는가
가는 꿈이 자취 되면 오는 길이 무되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오니
아마도 네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 작자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

[A]

- * 새우는지: 시샘하는지
- * 영녕하니: 차차 끊어지니
- * 옥안운빈공로: 고운 얼굴과 탐스러운 귀밑머리가 늙어감.
- * 만첩상사: 겹겹이 둘러싸인 그리움.
- * 공방미인독상사: 독수공방하며 임 생각에 몸부림치는 일.
- * 노류장화: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 밑의 꽃.
- * 네 정이: 옛정

3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이별로 인한 임의 부재 상황을 탄식하며 상심을 드러낸 여성의 노래이다. 화자는 이별과 그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를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기보다는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와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여성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① ‘조물(造物)이 새우는지 귀신이 휘짓는지’에서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조물’이나 ‘귀신’과 같은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②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에서 화자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언제 올지 모르는 임과 임의 ‘기별’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③ ‘교태겨워 웃던 웃음 해아리니 이 더욱 싫다’에서 화자는 ‘교태겨워 웃던’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④ ‘날개 돋힌 학이 되어 날아서 아니 가라’에서 화자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 ‘학’을 동일시하여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 ⑤ ‘날 사랑하든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에서 화자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가 ‘남’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임을 원망하고 있다.

3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와 대상을 단절시키고, ㉡은 화자와 대상을 매개한다.
- ② ㉠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은 화자에게 심정적 위안을 주고,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한다.
- ⑤ ㉠과 ㉡은 모두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정진사의 아들인 상서 ‘창린’은 과거에 급제한 뒤 박소지와 최소지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이후 기생 출신인 일지를 첩으로 삼는다. 이후 ‘창린’은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고 왕명에 의해 청나라 사신으로 길을 떠나게 된다.

상서가 최 부인과 박 부인 침소에 이르러 별회를 고하고, 일지에게 그 사이 잘 있으라 하니, 일지는 내심에 상서가 부종을 떠남을 다행히 여겨 은근히 기뻐하나, 겉으로는 가장 결연함*을 일컫는다. 다음날에 상서가 모든 곳에 하직하고 즉시 길을 떠나니라. [수일 후]

에 일지가 차돌이를 불러 상서가 이제 왕명을 받아 사신으로 감을 말하여

“이제 비로소 묘한 기회를 만났으니, 먼저 최씨를 없앨 계교를 생각하라.”
하니, 차돌이 말하되,
“먼저 최씨의 필적을 얻어야 가히 대사를 도모할 것이요.”
하니, 일지가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니, 내 기어이 그 필적을 얻어 주리라.”
 하고, 이에 **글씨를 모방**하여 편지를 쓰고 이르되,
 “이 편지를 누구에게 시켜 전하리오.”
 차돌이 대답하기를, “근처에 한 방물장수를 천거하겠소.”
 하고 즉시 방물장수를 찾아보고 이 뜻을 말하여
 “이 편지를 최부인 방에 갖다가, 넌즈시 자리 밑에 넣고 오면 공을 중히 값으리라.”
 하니 방물장수가 응낙하는데, 차돌이 또 말하되,
 “최씨의 옥지환을 가져다가 서간에 동봉하여 두거라.”
 하니, 일지가 춘란으로 하여금 옥지환을 도적하여 오라 하더라.
 [차시]에 춘란이 일지의 부탁을 듣고 최소저의 침소에 들어가니,
 이때 마침 방중이 비었기에 대희하여 상자를 뒤져 옥지환을 가져오 나라.
 차돌이와 일지가 대희하여 서간에 동봉한 후 방물장수를 주면서 말하기를,
 “부디 밀밀히 행계(行計)하라.”
 하니, 방물장수가 받아가지고 가니라.
 이러구러 **수일이 지나**매 방물장수가 최씨 침소에 들어와 방물을 사라 하니, 최씨가, “후일에나 사겠소.”
 하니, 방물장수가 앉아 한담하다가 돌아가니, 최부인이야 그런 흥계를 어찌 알리오.
 필낭에 수를 놓는데 문득 일지가 들어와 앉아 말하기를,
 “요사이 대강께서 왕명을 받아 사신으로 가시매 가증이 적적하오니 어찌 지내시는지요.”
 부인이 대답하여,
 “오래지 않아 환도하시리니 어찌 그 사이 적적함을 일컬을 바가 있으리오.”
 일지가 좌우를 고면(顧盼)하고 이에 객담을 말하며, 자리 밑에 넣은 편지를 넌즈시 거두어 가지고 자기 침소로 돌아가니, 최씨는 편지를 갖다가 자리 밑에 넣은 줄을 전혀 모르더라.
 차시에 일지가 그 편지를 감추어 가지고 돌아와 생각하되,
 ‘이제 진사공 보는 데 이 편지 사색을 보여 의혹(疑惑)하게 하여서 최씨를 잡으리라.’
 하고 틈을 타더니, **일일**은 진사가 외당으로 향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일지가 저의 방 앞에서 한 장 편지를 들고 가장 망단한* 모양으로 **다만 먼산만 바라보고** 섰거늘, 진사가 재삼 따지고 물으니, 일지가 그제야 마지못하는 체하고 드디어 편지 사연을 고하니,
 (종략)

어시에 진사가 읽기를 마치매 대경하여
 “이것이 무슨 말이나. 내 며느리가 어찌 이렇게 할 줄을 뜻하였리오. 이제는 집을 망쳤도다. 괴이한 자식이 법에 없는 장가를 한 번에 둘씩 들더니, 이러한 흥참한 일로 가문을 흐리게 하도다. 강한량이라는 놈은 어떠한 놈이기에 남의 집을 이렇듯이 망하게 하는가.”
 하며 노기가 등등하거늘, 일지가 이르되
 “이 일이 벌써 탄로될 뻔하였나이다. 이제야 자세히 여쭙오리다. 과연 **소녀의 눈에는 여러 번 띄었**사오나, 사기가 가장 중대(重大)하고도 어렵기에 차마 직고하지 못하였나이다.”
 진사가 더욱 대노하여 그 편지를 들고 대당으로 들어가서 최부인을 부르니 최씨가 즉시 나올새, 진사의 안색이 좋지 않으심을 보고 무슨 곡절인지 알지 못하여 대경 송구하여 들어와 한쪽으로 서니,
 진사가 침음양구(沈吟良久)*에 몰어 가로되,
 “네 ㉠ 옥지환을 어떻게 하였느냐”
 최씨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두었나이다.”

하고 들어와 두루 찾아보니 종적이 없기에, 진사가 고성대매(高聲大罵)하여 묻기를
 “굳은 마음을 알라 하는 옥지환이 어찌 온전하게 있겠는가”
 최씨가 아무런 연고인 줄도 모르고 돌아서서 울음만 나오는 것이라. 장부인이 또한 의아하여, “이 말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하되
 “이제는 집안이 망하였도다.”
 금련이가 이 말을 듣고 별당에 이르러 박씨를 보고 여쭙니
 “진사공께서 무슨 일인지 작은방 부인을 대단히 꾸중하십니다.”
 박씨가 놀라서 급히 나와 들으니 자세히 알 수 없었기에 최씨가 나오거늘 박씨가 나아가 물으니,
 “아버님께서 무슨 일로 이다지 진노하시는지요.”
 진사가 묵묵부답(默默不答)하다가 문득 소매 안으로부터 편지를 꺼내어 던지며, “네 이것을 보아라.”
 하거늘, 박씨가 **그 사연을 보고 대경하여**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분명히 최씨의 필적이라.
 “천만 사랑하여도 최씨처럼 철석 같은 사람이 없고, 방물장수가 최씨 방에 출입함이 있으니, 발명무로(發明無路)*하지만 필연 연고가 있는 것이라.”
 하고 박씨가 문밖으로 나오니, 최씨가 묻되
 “그 편지는 무슨 사연입니까?”
 박씨가 대답하여
 “사연이 여차여차하오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최씨가 말하기를
 “이 일을 어찌 모르겠나이까. 이 반드시 일지의 소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 **침의 팔자이오니** 누구를 원망하오리이까.”
 하며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시거늘, 박씨 역시 **애석하여 최씨를 붙들고 슬피 나무**하더라.
 진사가 이에 일지 방에 들어가니, 일지가 여쭙기를,
 “그 편지 사연에 **강한량이 내일 밤으로 온다** 하오니, 소녀가 조용히 엿보아 수상한 종적이 있거든 즉시 고하오리니, 잡을 도리를 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진사가 종기언(從其言)하여 잡으리라 하고 외당으로 나오니라.

— 작자미상, 「정진사전」 —

- * 결연함: 태도가 매우 굳세고 떳떳함.
 * 망단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처지가 딱한
 * 침음양구: 속으로 깊이 생각함. 또는 한참 있다.
 * 발명무로: 죄 없음을 밝힐 방법이 없음.

34. <보기>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윗글을 정리한 것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간	공간	일어난 일
수일 후	일지의 방	㉠
차시	최씨의 방	㉡
수일이 지나	최씨의 방	‘방물장수’가 방문하여 편지를 자리 밑에 몰래 넣음.
일일	일지의 방 앞	㉢
	내당	㉣
	별당	㉤
	일지의 방	‘정진사’가 ‘일지’와 대화를 나눔.

- ① ㉠: '차돌'이 '일지'와 만나 흥계를 꾸밈.
 ② ㉡: '춘란'은 '최 부인'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침.
 ③ ㉢: '정진사'가 외당으로 가던 중 '일지'와 만남.
 ④ ㉣: '정진사'가 '최 부인'을 불러 꾸짖으며 물건을 건넨.
 ⑤ ㉤: '금련'이 '박 부인'에게 내당에서의 일을 전함.

3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의도적으로 다른 인물을 속이는 행위는 특정 인물을 모해하거나 풍자하기 위해 흔히 활용된다. 이 같은 '속이기'는 서사의 흐름 측면에서 볼 때, 인물 간 갈등을 심화시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의 복선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인물과 주제 측면에서 볼 때, '속이기'의 상황에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선인과 악인이라는 전형성을 부각시켜 주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 ① '글씨를 모방하'거나 '다만 면산만 바라보'는 등의 '일지'의 행위는 특정 인물을 모해하기 위한 '속이기'라고 할 수 있다.
 ② '소녀의 눈에는 여러 번 띄었'다고 말하는 '일지'의 행위는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속이기'라고 할 수 있다.
 ③ '그 사연을 보고 대경하여'와 '애석하여 최씨를 붙들고 슬퍼 낙루하더라' 등을 통해 '박씨'가 '속이기'에 의해 모함을 받는 선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첩의 팔자이오니 누구를 원망하오리이까'를 통해 '속이기'의 상황에서 '최씨'의 소극적 성격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⑤ '강한량이 내일 밤으로 온다'라고 말하는 '일지'의 행위는 '속이기'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조성함을 알 수 있다.

36.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다른 인물을 질투하는 계기가 된다.
 ② 인물이 다른 인물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 인물이 다른 인물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는 바탕이 된다.
 ④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근거가 된다.
 ⑤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3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청나라로 떠나는 '상서'에 대한 '일지'의 태도는 한마디로 (㉠) (이)라고 할 수 있군."

- ① 감탄고토(甘呑苦吐) ② 유유상종(類類相從)
 ③ 읍참마속(泣斬馬謖) ④ 주마간산(走馬看山)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트리고,
 ㉡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 아아 ㉤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

* 간신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나)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운동주가 동경 유학 중에 느낀 삶에 대한 회의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품었던 과거 자신의 삶을 그리워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자신이 추구해온 바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소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삶과 고통스러운 삶이 중첩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은 과거 힘겨운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 ㉣은 현재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꿈을 잃지 않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은 현재의 화자가 소망하는 과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친구의 이야기와 강물의 흐름이라는 두 개의 정황이 진솔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정황은 '물'과 관련된, 하강의 이미지나 흐름의 이미지와 대응을 이루며 소멸의 이미지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시상이 전개될수록 소멸에 따른 슬픔과 허무의 정서가 고조되고, 이러한 정서가 개인에서 인간의 삶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인간 삶의 유한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설움의 보편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 ㉠ 1연에서 '서러운'에 나타나는 정서는, 화자가 '동무삼아 따라가'는 과정을 거친 후 하강의 이미지로 형상화됨을 알 수 있어.
 ㉡ 1연에서 '사랑 이야기' 끝에 보인 화자의 '눈물'이 2연에서 '울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슬픔의 감정이 점차 고조되어 감을 알 수 있어.
 ㉢ 1연의 '햇별', 2연의 '해질녘'은 각각 흐름, 소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설움의 보편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3연의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소리 죽은 가을 강'에 이르는 것을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는 인생의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3연의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난 '가을 강'이 '바다에' 다다를 '일'만 남았다고 본다면, 이는 인간 삶의 유한함과 관련된 허무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우리 집 닭을 서리하자는 세종의 제안에 동의한다. 몇 달 전 읍내에서 은행 살인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마을에는 현상금 벽보가 붙게 된다. 그런데 강도의 인상착의가 실종된 삼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얼룩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이로 인해 아버지는 불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세종이 아버지가 우리집을 찾아온 것은 바로 다음날이었다. 눈썹이 긴 얼굴로 그는 기웃기웃 우리집으로 들어섰다. 아버지와

나는 시래기를 엮어 뒷벽에 매달고 있었다. 그는 주독이 든 컵을 문지르며 아버지와 내가 시래기 엮는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그놈이 살아 있긴 있는 모양이죠.”

“누가?”

“야 삼촌 말요.”

아버지는 짚을 들었던 손을 놓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 담배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랜 죽었어. 그것도 오래 전일세.”

“아저씨도 뭘 말을 그렇게 하슈. 작년 추석엔가 내가 동철인 죽었나 보죠. 올해도 안 오는 걸 보니 하니께 펄쩍 댔 게 바로 아저씨넬쇼.”

“죽었다면 죽은 줄 알어!”

“거 이상하네요. 내가 죽은개비요 할 땐 살았다더니, 내가 살았는 거 싫다니 이젠 죽었다니 원.”

“허튼 수작 말고 가 봐!”

“앗따 아저씨두. 내가 다 알지요. 아저씨 동생 찢러 넣고 현상금 혼자 타 먹으라 그러는 거지요? 인심이 그래서야 쓰겠수.”

“네 이놈! 태종이 이놈!”

아버지가 집어 던지는 무 시래기를 맞으며 세종이 아버지는 도망쳐 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소리쳤다.

“뭇 씨요! 아무리 그렇기로 동생을 찢러넣어요!”

세종이 아버지 태종이는 우리들에게도 태종이었다. 그는 어른이 아니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큰소리를 치다니. 아버지가 태종이에게 집어던져서 호트러진 시래기를 주워 모으며 나는 자꾸만 입술을 깨물었다. 하던 일을 버려둔 채 아버지는 험하니 삼썩을 빠져나갔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있는 빈 들판을 걸으며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많던 메뚜기들도 보이지 않았다. 메뚜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새 얼어 죽은 것일까. 어둠이 내리면서 마을에는 하나둘 불이 켜졌다. 대추나무 뒤쪽으로 보이는 우리집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집을 바라보며 나는 자꾸만 고개를 저었다. 배가 고파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캄캄하게 어두운 빈 들판을 걸으며 나는 눈물을 참느라고 자꾸만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던 밤에 아버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느 놈이여, 어느 놈이냐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앞으로 나는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고향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을에서는 팔러가고 남은 아직 살도 제대로 오르지 않은 개들이 짖어대곤 했다. 두런 두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면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삼썩을 뛰쳐 나갔다. 제사를 지내고 밤늦게 돌아오던 사람들을 때릴 뻔한 일도 생겼다.

“니네 아버지는 잠을 안 잔다면서.”

들개가 코를 벌름거리며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녀석의 개를 뿌린 것 같은 얼굴을 피가 흐르게 쥐어뜯었다. 이제 나는 아이들 파도 떨어져서 혼자 마을회관 옆길로 빠져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따금 ㉠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는 그때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었다. 때로는 삼촌이 아버지를 끌고 가기도 했다. 삼촌은 토마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금이 가고 헐어빠진 시멘트로 된 삼촌은 코가 깨진 얼굴로 다리를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오른손은 언제나 토마스와 똑같이 두툽한 권총을 힘차게 허리에 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은 여전히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닭이

울었다.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걸음을 늦추었다. 나는 아버지가 깨어 있기를 바라며 집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버지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중략)

날개를 펴들쩍거리며 잠에서 깬 닭이 몸을 뜨는 순간 내 오른손은 그의 목을 정확하게 틀어잡았다. 목직한 닭이 내 손에 들어오는 사이 닭들이 다시 꾸룩거리기 시작했다. 닭은 다리를 버둥거리며 목을 켜 내 손을 할켜냈다. 오른손에 더욱더 힘을 가하면서 나는 세종이에게 그 닭을 내밀었다. 세종이는 벌리고 있던 노끈으로 닭의 목을 묶기 시작했다. 세종이의 노끈으로 날개와 목이 묶인 닭은 그의 손을 거쳐 닭장 밖의 아이에게 전해졌고, 자루를 들고 있던 아이는 그놈을 받아 자루에 집어넣었다. 이제 나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그가 뛰어나오며 도둑들을 향해 소리치기를 기다리면 되었다. 나는 처음부터 두 마리의 닭을 훔칠 생각은 아니었다.

“빨리 해.”

세종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닭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곤 맨 끝에 있는 닭의 몸통을 손바닥에 확인한 다음 있는 힘을 다해서 **닭들을 해의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닭이 떨어지는 소리, 떨어진 닭들이 놀라 꼬이악꼬이악 질러대는 소리로 한 순간에 닭장 안은 수라장이 되었다. 놀란 닭들이 위쪽 해에서도 떨어져 내 목덜미를 때렸다. 아이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번들거리는 달빛 속으로 나는 닭이 든 자루를 내던지며 달아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삽작을 빠져나간 아이들이 대추나무 아래로 사라져가는 발소리가 얼어붙은 고요를 깨며 들려왔다. 아버지가 뛰어 나온 것은 그때였다. 닭들은 아직도 소란스레 울어대고 있었다. 몽둥이를 든 아버지가 활짝 열려진 삽작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닭장을 빠져나왔다. 아버지의 고향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이놈 새끼들아! 동네 노무새끼들은 다 나와! 아주 우리 집에서 살아라 이놈들아. 살라구. 살라 말이다!”

순간, 나는 아랫도리가 뜨거워졌다. 나는 선 채로 오줌을 누고 있었다. 내복을 적시며 흘러내린 **뜨거운 오줌**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 발목으로 스며들었다. 양말이 척척해졌다.

대추나무가 있는 언덕에 서서 아버지는 여전히 몽둥이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닭장에서는 아직도 놀란 닭들이 울어대는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들이 달려갈 저 멀고 먼 토마스 다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얼룩무늬의 사내도 동네의 그 누구도 아니라 도둑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 수 있도록 더 크게 닭들이 울어대기를 바랐다. 푸른빛으로 번들거리는 달빛 속에서 서서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버지를 나는 불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만 턱을 떨면서 서 있었다. 척척해진 바지가 차츰 차가워져서 그것이 살에 닿지 않도록 엉거주춤 선 채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닭의 울음소리보다도 점점 더 작아지는 착각에 빠져들어갔다.

마을에서 일제히 개가 짖어대기 시작했다.

- 한수산, 「밤길」 -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장면 묘사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통해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의 ‘나’는 아이의 입장에서 ‘어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때 ‘어른의 세계’란 물질 중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점차 유대감이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를 말하는데, 현상금으로부터 촉발된 집단적·물질적 욕망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억압과 폭력의 양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나’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결국 ‘나’는 ‘아이의 세계’에서 장난처럼 행해지는 ‘서리’를 통해 ‘어른의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당혹감을 느낀다.

- ① ‘태종이’가 우리 집에 와서 ‘허튼 수작’을 하는 것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한 가족을 감시하는 행위의 하나임을 알 수 있어.
- ② ‘아버지’가 ‘밤마다 소리를 질러대’거나 사소한 소리에도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이 표출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③ ‘나’가 ‘들깨’의 ‘얼굴을 피가 흐르게 쥐어뜯’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여 유대감을 상실한 공동체 구성원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알 수 있어.
- ④ ‘나’가 ‘닭들을 해의 안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악화되지만 하는 가족의 상황에서 ‘나’가 자기 나름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어.
- ⑤ ‘아버지’가 지르는 소리를 들은 직후 ‘나’가 ‘뜨거운 오줌’을 흘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나’의 심리와 관련된 반응임을 알 수 있어.

4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들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② ‘나’와 관련된 인물들의 과거 사건을 제시한다.
- ③ ‘나’가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를 암시한다.
- ④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나’의 의지를 표출한다.
- ⑤ ‘나’에 대해서 인물들이 지니는 태도를 보여준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임 너 요즘 잔소리가 부쩍 심해졌어!
 자양 나도 그걸 느껴. 아마 나이 탓이겠지.
 기임 나이 탓이라구? 천만에! 난 너와 나이가 비슷한데 잔소리가 없잖아.
 자양 어쨌든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져.
 기임 우리가 늙었다는 거야?
 자양 젊었다곤 할 수 없지. 인정할 건 인정하자구. 너와 나는 이제 젊진 않아. 여자 뒤를 쫓아다니는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제 조용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지.
 기임 나도 생각이 있어. 난 아무 까닭 없이 여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냐. 빌어먹을, 이 창고 속을 보라구! 상자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이 지겨워 죽겠는데, 먹고 자는 생활도 이 창고 속에서 하고 있잖아! 난 늙기 전에 결혼해서 이 창고 속을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자양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거야. 그게 서로 다르면, 사람은 불행해져.
 기임 ㉠ 정말 고리타분한 소릴 하고 있군!
 자양 그리고 말야, 이 창고를 빠져나가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빛나는 우주는 거대한 창고지. 세상은 그 거대한 창고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창고이고, 우리의 이 창고는 그 조그만 창고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창고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창고거든. 결국은 창고를 빠져나가도 또다시 창고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누구든지 완전하게 창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해. 만약 우리가 이 창고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다른 창고에 들어가본들 행복할 수는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창고, 이 창고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중간 줄거리] 기임은 다령과 사귀면서 종종 술에 취해 돌아오고, 자양은 그를 위해 북어 대가리로 해장국을 끓여 준다. 창고지기 생활에 실증을 느꼈던 기임은 창고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다령과 함께 짐을 행친다.

다령 (늦쇠 국자로 소리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 들이나 골라봐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굼벵이, 네가 골라줘.

자양 아냐,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령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자양 가져가요.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미스 다령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령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트럭음을 들고, 자양에게) 그림 잘 있어.

자양 (마지못해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미스 다령,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주고 갈까?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령의 웃음 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으로 가득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한.....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덜덜덜덜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봤다구 판단해선 안 돼. (핸들 카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압전한다.

- 막 -

- 이강백, 「북어 대가리」 -

44.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를 지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임’은 ㉠을 말할 때 상대의 말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 ② ‘자양’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③ ‘다령’은 ㉢을 말할 때 북어 대가리를 이리저리 보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 ④ ‘다령’은 ‘기임’을 보면서 보채는 듯한 말투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⑤ ‘기임’은 무대 밖에서 무대 안의 ‘자양’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을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두 명의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를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육체를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된다. 작가는 한 인간의 내면으로 상징된 공간에서 이성적 자아를 상징하는 ‘자양’과 육체적 자아를 상징하는 ‘기임’을 통해 개인의 내면 의식의 붕괴를 무대화하여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 ① ‘잔소리’에 대해서 ‘기임’과 ‘자양’이 대화하는 장면은 무기력한 정신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 ② ‘기임’이 떠난 후 혼자 남은 ‘자양’의 독백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면 의식의 붕괴를 보여준다.
- ③ ‘자양’이 머무는 창고를 ‘기임’이 떠나는 행위는 한 인간이 정신만 남겨두고 육체를 상실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④ ‘자양’이 식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북어 대가리’라는 소품은 육체를 상실해 불완전한 자아로 남겨진 내면의 문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기임’과 ‘자양’이 먹고 자는 생활마저도 함께 하는 ‘창고’라는 무대 공간은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